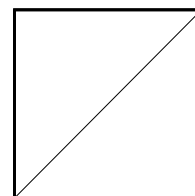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 18. (제 1 차)	

(주)텐베이스인베스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1. 18.

1. 의결주문

(주)텐베이스인베스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텐베이스인베스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 금지 위반' 및 '업무상 횡령'이 적발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22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 금지 위반

○ ◆◆◆◆ ○○○ : 문책경고

나. 업무상 횡령

○ ◆◆◆◆ ○○○ : 해임요구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7차 제재심의위원회(2022.7.21.) 심의필
- 제1차 임시 안전검토 소위원회(2023.1.18.) 심의필

<별지>

(주)텐베이스인베스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임원에 대한 조치

○ ◆◆◆◆ ○○○ : 해임요구

- 조치사유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 금지 위반
- 업무상 횡령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2. 조치사유

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 금지 위반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주)텐베이스인베스트는 '19.11월~'21.1월 기간 중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적법한 투자운용인력도 아닌 ◆◆◆에게 공모주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일임계약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 일임업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투자일임금액 총 11억원(대상기간 중 일임계약서상 일임 계약금액 합계, 3건)

나. 업무상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주)텐베이스인베스트의 ◆◆◆◆ ○○○은 '21.6.28. 회사가 고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 주식 50만주(1,478백만원)를 매매계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 지인 2인에게 전량 출고*하여 이들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게 함으로써 회사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 대학선배) 40만주, ●●●(◆◆◆◆ 초등학교 동창) 10만주

** ◆◆◆는 입고된 주식 40만주를 장내에서 전량 매도(매도대금 약 11.5억원 중 5.8 억원은 ○○○, 2억원은 회사의 ㉡㉡㉡㉡이자 前 ○○○○○○○○인 ▽▽▽에게 출금하고, 나머지 3.7억원은 본인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며, ●●●은 입고된 주식 10만주를 본인의 타사 증권계좌로 출고

(붙임)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 (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생략) 3. 문책경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64	02-3145-7630